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인턴쉽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저는 지난 2005년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인턴쉽 훈련을 마치고 이를 통해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로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인턴쉽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배우고 담대하게 전할 젊은 세대를 위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나요?"

저는 창조과학의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 서적, 강연 DVD 등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은 "지식"에 한정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매체에 담길 수 있는 "기록가능한 지식"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선교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1로 훈련받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매체로 전달될 수 없는 보다 깊은 창조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통

해 "성경"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로서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역자의 길,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에 대해 생생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지식과 성경과 사역, 이 세 기둥이 조화되는 가운데 받았던 훈련은 이후 제 개인의 신앙 및 창조과학 교육사역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는 인턴쉽 프로그램 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기둥과 연관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 인턴 기간동안 창조과학의 내용들을 기본서부터 세부전공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이 단지 자연과학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어원은 진화론과의 과학적 논쟁에서 시작되었지만 창조과학은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 고생물학, 철학, 교육학, 그리고 신학을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독학으로는 쉽게 세울 수 없었을 체계들이인턴쉽을 통해 잡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과학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그러한 지식들이 성경의 이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은 예를 들어 단지 노아홍수가 실제 사건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이 복음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겐 인턴쉽 기간이 창조과학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게 성경이, 하나님이 더 생생해진 것입니다. 셋째, 인턴 기간동안 저는 배움과 더불어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에 스탭으로 참가하여 준비과정부터 실제 여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실제로 사역이 벌어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받은 감동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더불어 창조과학 강연, 뉴스레터 편집, 창조과학 교재의 개발, 웹페이지 등 다양한 사역의 영역에서 훈련받으며 실제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쉽 프로그램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인턴쉽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위의 훈련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위의 훈련 이후 전임 혹은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에 동참하기로 이끌려 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자의 전공과 상황에 따라 강사로서, 탐사여행 인도자로서, 미디어 사역자로서 훈련받고 실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2단계 프로그램은 저 자신이 지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단계의 훈련은 모두가 반드시 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턴들은 첫번째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도 각자의 교회에서, 혹은 직업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품게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 사역의 영역은 다양하고, 추수할 일꾼은 적습니다. 젊은 날 몇 개월의 시간을 통해 일생

동안 헌신할 비전을 품게 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저는 인턴쉽을 통해 집중적으로 창조과학 교육을 받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명확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 써야 할지 깨닫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최태현, 강사

최태현 형제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학사)을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MPA)에서 행정학 분야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 대학 행정관리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2005년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인턴쉽을 마쳤고 2006년부터 세계관 분야의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10 창조과학선교회 인턴쉽 안내

창조과학선교회는 자연과학 전공자로서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인턴쉽에 헌신하실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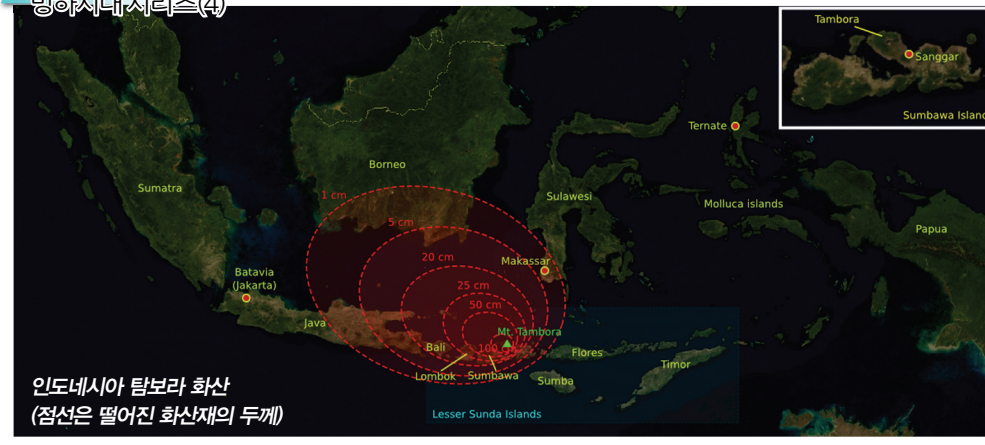
인턴쉽은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ACT-IS-1과 사역자 과정인 ACT-IS-2 두 단계가 있습니다.

1. **기간**
   ACT-IS-1 : 2010년 5월 20일 – 8월 18일
   ACT-IS-2 : 2010 년 8월 19일 – 11월 17일

2. **Faculty:**
   최우성 박사/ 이재만 선교사/ 이동용 박사/ 최태현 강사 등

3. **교육 내용**
   창조과학 세미나/ 문헌 읽기와 토론/ 현장학습/ 성경 읽기/ 실습(ACT-IS-2)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
   혹은 사무실(213-381-1390)로 연락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점선은 떨어진 화산재의 두께)

빙하시대 조건들과 화산 폭발

빙하는 눈이 쌓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빙하시대의 핵심은 "눈(snow)"에 있다. 즉 빙하시대는 광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으며 녹지 않았던 시기를 의미한다. 대기는 당연히 눈을 만들 만큼 낮은 온도를 유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 지구의 기온이 지금의 극지방과 같이 아주 추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눈이 내리고 녹지 않을 기온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하나는 선선한 여름이다. 오늘날 극지방 일부를 제외하고 겨울에 쌓였던 눈들은 여름을 넘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그러므로 빙하시대 동안에는, 겨울에 내린 눈을 녹지 않게 할 수 있는 지금과 사뭇 다른 '선선한 여름'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여름에 빙하가 녹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여름보다 기온이 섭씨 10–12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19791).

위의 두 조건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눈을 내리게 하는 습기의 근원이다. 지구 전체가 춥다고 해도 눈의 근원인 습기의 공급처가 없으면 광역적인 강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역적으로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바다 물의 증발이 필수적이다. 물의 순환을 볼 때 오늘날에도 비나 눈을 내리는 습기의 근원은 대부분 바다이기 때문이다. 즉 빙하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눈 결정을 만들 만큼 기온이 낮아야 하지만, 반면에 증발이 빨리 일어날 만큼 바다의 온도는 높아야 한다. 이런 특이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빙하시대를 그려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모든 빙하시대 이론은 바로 추운 날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빙하시대는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요약될 수 있다.

1. **차가운 기온** - 눈을 만들 수 있는 조건
2. **선선한 여름** - 쌓인 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
3. **따뜻한 대양** - 다량의 증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이제부터 위의 세 조건을 자세히 다루어볼 것이다. 세 조건 중에 1, 2번인 차가운 기온과 선선한 여름은 낮은 기온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취급해도 될 것이다.

광역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게 하는 자연과정으로는 화산 활동을 들 수 있다. 화산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화산재가 분출하는 화산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이다.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산은 폭발 규모가 훨씬 크며 지구 기온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화산재와 먼지가 한동안 공중에 떠 있어 태양 복사에너지를 차단시키므로 대기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실제로 커다란 화산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약 1도 낮아졌으며, 이 낮은 기온은 1-3년 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Krakatoa) 화산이 분출될 때 약 1억 톤의 먼지가 성층권으로 분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수년 간 눈에 띄는 낮은 기온의 날씨 변화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지구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화산을 꼽으라면 1815년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탐보라(Tambora)화산폭발일 것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폭발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된 화산 중에 가장 대규모의 화산이다. 지질학자들은 화산폭발 지수를 1-8로 나누는데 7에 분류될 정도의 큰 화산폭발이었다. 이때 분출 여파가 너무 커서 다음 해인 1816년은 '여름이 없어진 해' 로 불릴 정도였다. 그 변화의 기록을 보면 가히 놀랄 만 하다. 미국의 북동부와 캐나다 남동부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비교적 안정된 지역인데 매년 평균 섭씨 20-25도를 유지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해는 섭씨 5도로 떨어졌다. 여름에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임에도 그 해 여름에는 눈보라가 치기도 했다. 캐나다 동부와 뉴잉글랜드 주에서는 6월의 강설로 많은 사망자도 생겼다. 캐나다의 퀘벡(Quebec)시는 6월 초에 30cm의 적설량도 기록했다. 펜실베니아 남부는 7, 8월에 호수와 강에서 얼음을 볼 수도 있었다. 6월에 미 동부에서 서리가 내리고 이런 날씨가 약 3개월간이나 발생하며 농작물의 피해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 화산은 북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까지 춥게 만들었는데 6월에 눈을 내리고, 7,8 월에 농작물이 얼도록 하였다. 영국과 근방에서는 추운 날씨와 폭우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먼 거리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였다.

과학자들은 위의 추위는 단지 1815년의 탐보라 화산폭발이 독단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1812년의 La Soufriere(대서양 쪽 중미)와 Awu(인도네시아), 1813년의 Suwanosejima(일본), 1814년의 Mayon(필리핀)의 대형 화산 들이 연이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존의 화산에서 분출된 먼지들이 탐보라 화산이 터지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떠 있었으며, 거기에 초대형 탐보라 화산이 가세함으로 극도의 추위가 왔던 것이다.

실제로 빙하시대는 화산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의 화산보다 더 규모가 큰 화산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빙하시대를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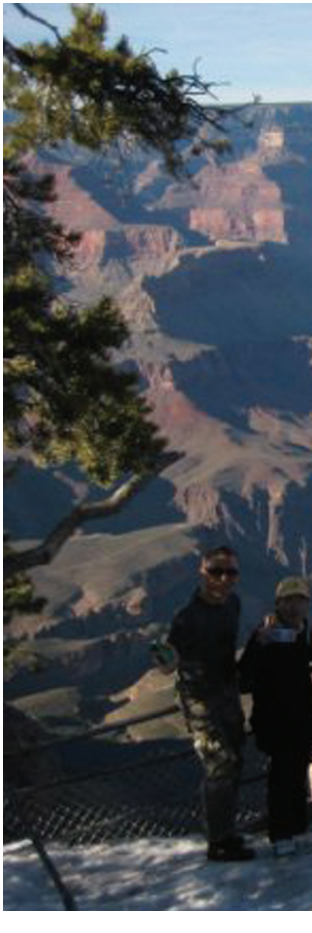
1 Williams, L. D. An energy balance model of potential glacierization of northern Canada. Arctic and Alpine Research 11:445-456.

세미나

지난 3월에도 창조과학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토 부활의 교회(담임목사: 임성찬, Canada), 빙햄튼 침례교회(송경원, NY), 엘파소 EM 세미나(교역자 협의회, TX), 한우리 교회(문일명, CA), 만남의 교회(박성호, C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생수의 강 선교교회(안동주), LA온누리교회(안광국), House of Siloam(Miyagawa), CNH Study Group 등에서 이어졌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소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의료선교기관인 만나 선교회(회장: 김인식)에서 총회를 마치고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탐사여행이 전도의 귀중한 도구임을 알고 개인적으로 모아서 다음 탐사여행의 스케줄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장로회 국제총회 가주노회(노회장: 김재문 목사)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가주노회는 66명이 참석하여 두 대의 버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 이 세대에 창조과학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시며, 탐사여행 동안 EM 탐사여행을 계획하시기도 했으며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교의 졸업생들도 졸업식 직전에 탐사여행을 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에 일정이 잡힌 EM 탐사여행은 6월 28-30일 (갈릴리은혜교회, 담임목사: 구본철)와 8월 5-7일 (Everyday Church, 담임목사: 최홍주)로 김낙경 박사와 김선욱 박사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교의 졸업생들은 6월 3-5일 글로벌 선진 기독학교와 함께 떠나며 최우성 박사가 인도합니다.

이번 국제총회 탐사여행은 갈릴리 은혜교회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를 노회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는 대전온누리교회(3-7일), 풀러톤 장로교회(21-23일), ANC 온누리교회(29-31일)의 탐사여행이 이어집니다. 이 탐사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모집 탐사여행 안내

아래와 같이 모집하는 탐사여행이 있습니다. 신학생과 유학생을 위한 탐사여행은 참가 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6월 21-23일)

그랜드캐년과 세도나를 중심으로 진행. ANC 온누리교회에서 후원으로 신학생은 참가비가 $90입니다.

그랜드캐년에서 만나선교회

세도나에서 가주노회 총회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8월 2-4일)

그랜드캐년과 세도나를 중심으로 진행. 서울과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유학생(남가주 지역은 제외)은 참가비가 $90입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6월 10-12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310입니다. 참가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다녀 오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7월 15-17일)

누구나 개인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랜드캐년과 세도나를 중심으로 진행 되며 참가비는 $300입니다.

최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란 동일한 이름의 광고를 보고 혼동되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급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ACT) 고유의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턴쉽

2010 창조과학선교회 인턴쉽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3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 혹은 사무실(213-381-1390)로 연락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기를 권하고 주위에 후보자가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학교 소식

서부 제 16 기 종강

LA 새한교회(담임목사: 정세훈)에서 총 19 명이 등록하여 진행되었던 제 16 기 창조과학학교가 16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3월 26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창조과학에 대해 접해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 속에서 발견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현대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열리게 됩니다.

서부지역 제 17 기 창조과학 학교는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 West LA 캠퍼스(담당목사: 한성득)에서 5월 2일 주일부터 31일까지 매 주일 오후(1:30 - 4:30)에 집중 강의로 열리게 됩니다. 주소: 3840 Grand View Blvd, Los Angeles; (310)397-2741.

서부지역 제 18 기 창조과학학교가 6월 13일 - 8월 22일 (매주 일요일 오후 2:15 - 4:15)까지 작년 여름 제 14 기에 이어 ANC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창조과학학교는 주최하는 교회에 다니시지 않더라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열리는 창조과학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제 10 기 창조과학학교 개강

제 10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시카고 구세군교회(담임 장호윤 사관)에서 4월 9일부터 열렸습니다. 그 동안 쌓아 온 성과에 힘입어 45명이란 많은 학생들이 등록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6월 11일 까지 매 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게 됩니다. 문의: 847-845-5368/630-400-6114, Email: tyi@sbcglobal.net

만약 알 수 없는 수의 동물들을 크기를 알 수 없는 방주에 다 집어 넣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산수 실력을 확인해 보라. 당신이 방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다오!

창세기 1장의 '날'만 일상적인 하루가 아닐까?

성경적 세계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모든 창조론자들이 알아야 할 10가지(1)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인(창조론자)이라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그 위에 세울 때, 감사하게도 근본적인 대답들은 놀라우리만치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혼동시키는 가장 빈번한 10가지 질문들에 대해 요점이 되는 대답들을 간단하게 다룬다. 물론 원하는 분들에게는 더 자세한 대답들이 준비되어 있다.

주제 1: 문자적인 6일

"문맥상 창세기 1장의 "날"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한다. 그 단어가 "저녁과 아침" 혹은 "6일"과 같은 숫자와 함께 쓰일 경우 언제나 그것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과연 천지를, 식물들과 짐승들과 처음 두 사람(아담과 하와)을 문자 그대로 6일동안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창조가 수백만년동안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창세기의 원래 독자는 과학자나 히브리 학자가 아니었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원래 독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교육받지 못한 노예출신들이었다. 부모 세대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았고 (신명기 6:1–7),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는 보통 사람들과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명확해야만 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나 영어로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된 6일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점이 명확하다. 첫째,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땅(지구)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리고는 (히브리 원어로는) "그리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이는 첫째 날이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을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셨다.

구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욤)가 "저녁" 혹은 "아침"과 함께 쓰이거나 숫자(예를 들어, "여섯째 날" 혹은 "5일동안")에 의해 수식받을 경우 그것은 언제나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한다.

창조주간의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날들(days)이 문자적인 날들임을 보여주셨다. 이 천체들을 통해 하나님은 문자적인 연한(years)과, 문자적인 사시(seasons)와, 문자적인 날들(days)을 구별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8–11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 일" 동안 창조하셨으니 문자 그대로 6" 일" 동안 일하고 7일 째에 쉬라고 명령하셨다.

더욱이,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창세기 1–11장을 숨김없는 역사적 진술로 여겼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다른 많은 학술적 근거들이 있다.

최근의 6일 창조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성경적 혹은 과학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교만한 주장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을 수 있겠는가?

죽음이 없었던 6일간 = 죽음(화석)으로 구성된 6억 년? *위 동식물 화석 중에 연대를 측정하여 제 위치를 잡은 생물은 하나도 없고, 지층의 연대도 측정된 것이 아니다. 모두 진화의 믿음으로 결정 된 것들이다.*

Terry Mortenson, Ph.D.

영국 Coventry 대학 지질 역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Trinity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6년간 CCC에서 사역하였고, 현재는 AiG의 강사, 연구원, 저자로 사역하고 있다.

번역 정리: 최태현, MPA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5)

루시의 골격을 보고 상상한 그림(좌)과 전시물(우)

존재하지 않는 유인원(Ape man)을 만드는 방법은 3 가지가 있다. 사람과 원숭이를 조합하거나, 꼬리없는원숭(Ape)이에서 사람 닮은 점을 크게 드러내거나 반대로 사람에서 원숭이 닮은 점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꼬리없는원숭이로 사람 닮게 만드는 예를 소개 한다.

꼬리없는원숭이를 사람으로 만들기

사람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진화론자들이 격상시키려고 시도했던 많은 유인원들은 그저 꼬리없는원숭이들이었다. 멸종한 원숭이들(예, Ardipithecus, Sahelanthropus, Kenyanthropus) 뿐 아니라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신(australopitheciens)들이 유인원으로 둔갑한 꼬리없는 원숭이들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꼬리없는원숭이의 두개골, 원숭이 골반뼈, 원숭이의 손과 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스트랄로피테신(특히 Australopithecus afarensis)들은 현대인의 손과 발을 가지고 꼿꼿하게 선 직립 자세와 사람의 걸음 모양을 하고 있는 초상화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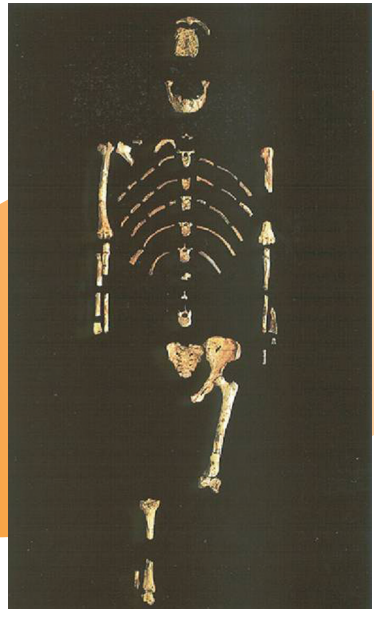
가장 잘 알려진 A. afarensis 화석은 루시(Lucy)라는 이름으로 알려 진 것이다. 살아 있는듯한 루시의 마네킹은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의 리빙 월드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발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원숭이 머리에 몸에 털이 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약 90 센티 미터 키의 루시

는 곧게 서 있는데 그녀의 오른손 직지는 그녀의 턱 아래를 감싸고 있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이고, 그녀의 눈은 마치 뉴톤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거의 어떤 방문객도 이것이 화석 원숭이 Australopithecus afarensis에 관해 알려 진 바와는 달리 엄청나게 허위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꼬리없는원숭이들은 우수꽝스런 손목을 가졌고 긴 팔에 주먹관절을 땅에 대고 걷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동물의 손과 발은 꼬리없는원숭이가 분명하다. 고생물학자 스턴(Jack Stern) 과 수스만(Randall Sussman)1은 "이 동물의 손은 피그미 침팬지와 일반 침팬지 손의 소단부(small end)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그 동물들이 발도 손처럼 "길게 굽어 있고 근육으로 꽉 차 있어" 나무에서 살고 있는 영장류와 아주 흡사했다고 말한다. 그 저자들은, 어떤 현존하는 영장류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나무에서 살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런 손 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맺는다.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과 박물관들은 실제적으로 사람 발을 가진 루시(A. afarensis)를 계속 표현하고 있다. (마침내 어떤 그림들은 길게 구부러진 손가락들을 가진 손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다.)

데이빈 멘튼 / Answers in Genesis
출처: War of the Worldviews(2005)
1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60: 279-317, 1983.



세속 과학자들이 침팬지같은 동물로 결론 지은 루시의 골격. 가장 중요한 정강이 뼈는 2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 된 것임

간증

만나선교회(3/16 - 3/18) & 가주노회 총회(3/23 - 3/25) 탐사여행

하나님을 잘 모르는 형제들과 함께 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들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그 동안 가졌던 진화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또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는 말씀에 참 많이, 깊이 느끼면서 창조과학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였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여질 것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 *이선주, 시애틀 형제교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잘못된 지식이 주는 무지함.....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무의식 중에 자리잡고 있던 진화론..... "어떠한 하나의 사건" 우리가 바로 잡고 알고 알려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얼굴을 담대히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어야 할 텐데.....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실 주님께..... 창조과학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문수진, 한국 경동교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진화론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전 창조과학선교회를 알기 전 까지도 저는 진화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러한 진화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호, 남가주사랑의교회*

저는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 사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여 성경의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랜드캐년은 이번 여행까지 네 번째 왔는데, 그 동안 그냥 관광을 통해, 선교를 통해 보고 와! 하고 사진 찍고, 선물 사고 하며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노아홍수 사건으로 생긴 지층과 사층리 등 그랜드캐년이 오랜 세

월을 통해 쌓여진 지층이 아니라는 사실..... 여행사 가이드도 모르고, 선교팀들도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을 알아서 참 감사하고.....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 과학으로 과학을 전하면 변하지 않지만 성경말씀으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간증 앞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김수정,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뿌옇게 흐려 보였던 성경의 앞 구절들 특히 노아홍수와 창조의 과정이 깨끗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창조의 이론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신앙의 기초가 다시 다져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숙소,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 선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이영호,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만나선교회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저 자신이 탐사여행에 대해 별 준비 없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경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너무 잘 이해했고, 노아홍수의 사건을 통해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이 대량의 물과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함으로 내 자신이 놀랐습니다. 또 지구의 나이, 노아홍수의 때가 4,500 – 5,000년 전의 일임을 배우는 등 창세기를 완전히 알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 *송성호,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고, 시인하고, 눈으로 확인한 이 복음을 만나선교회를 통해 전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참가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 *유숙자 권사, 뉴욕 새교회*

노아홍수 전반부에 전 지구적인 퇴적층이 형성되고(지구 표면의 80%), 후반부에 융기와 침강을 통해, 그리고 홍수 전, 중, 후에 일어난 화산폭발과 대륙판의 갈라짐, 또 천년 미만의 빙하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직접 보고 듣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성도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한인 2세들이 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많이 참석하여 진화론으로 오염된 생각들을 정화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 성경의 무오설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될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 *최규남 목사, 테메큘라 갈보리교회*

● 지면상 다 싣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모든 간증은 www.HisArk.com의 "간증"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Schedule

2010년 ACT Schedule

5/2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 LA Campus, (이재만, 213-220-1716)
5/3-7	창조과학 탐사여행 (대전 온누리교회, 213-381-1390)
5/9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LA Campus, (이재만, 213-220-1716)
5/9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LA, CA
5/16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 LA Campus, (최우성, 213-220-1716)
5/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홀러톤 장로교회, 213-381-1390)
5/22	샌디애고 창조과학 박물관 (최우성, 남가주 주님의 교회, 213-386-2160)
5/23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 LA Campus, (최우성, 213-220-1716)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5/30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5/30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 LA Campus, (최태현, 213-220-1716)
5/30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W. LA Campus, (최우성, 213-220-1716)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최우성, 글로벌 선진 기독학교, 213-381-1390)
6/4-6	포틀랜드 청년 연합집회 (이재만, 503-560-3763), OR
6/6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최우성), LA, CA
6/7-9	창조과학 탐사여행 (오렌지 한인교회, 213-381-1390)
6/10-1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6/11-13	오레곤 지역 EM 청소년 세미나 (김선욱 박사), Oregon, OR
6/13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 (이재만), LA, CA
6/13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Lake View Terrace, CA
6/14-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장로교 신학교 교수)
6/20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Lake View Terrace, CA
6/21-23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213-381-1390)
6/24-26	빙하시대 탐사여행 (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6/27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Lake View Terrace, CA
6/28-30	갈릴리 은혜교회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6/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의사 그룹, 213-381-1390)
7/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름다운교회, 213-381-1390)
7/4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